

사·부·대·중

가을산사의 걱정거리

가을철 단풍이 절정을 이룰때면 풍광이 좋은 곳에 위치하고 있는 산사들은 단풍구경꾼들 때문에 한바탕 몸살을 앓곤 한다.



홍승 대구 부도암

대부분 도심지에 사는 관광객들은 오랜만에 시간을 내서 심신을 맑게 하고 눈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산을 찾고 자연을 찾는다. 자연이 주는 청량감은 공해에 찌든 이들의 마음을 정화하기에 항상 충분하다.

하지만 해마다 이맘때면 산사에 사는 스님들은 관광객과의 전장을 치루어야 한다. 산사와 자연을 찾는 관광객들의 몰상식한 행동 때문이다. 계절 전 거주하는 사찰에서 일어났던 일이다. 바깥이 하도 소란스러워서 나가보았더니 원주소임을 보는 스님과 한 관광객이 소리를 높여 다투고 있었다. 무슨 일인가 싶어 들어가 보니 절 뒤쪽의 밭에서 내려 오길래 왜 그쪽에서 내려오느냐고 했더니 괜히 절이 생겨서 산도 마음대로 못타게 됐다며 오히려 투덜댔다는 것이다. 그 밭의 잘못을 지적하다보니 언성이 높아지게 되고 그만 시비가 되고 만 것이었다. 다툼을 진정시키고 관광객을 잘 태워달라 보내긴 했지만 가슴이 답답해지는 것은 막을 수가 없었다. 그 관광객이 내려온 절 뒤쪽은 상

수도 보호지역으로 지정이 되어서 공원관리소에서 철조망을 쳐놓은 곳이다. 하지만 쳐놓은 철조망은 무용지물이 되기 일췌인데 그 이유는 쳐놓으면 렌치로 끊고 들어오고, 조금 더 위로 치면 또 그 위로 셋길을 내서 다니고 하여서 가끔 지그처럼 시비가거리가 일어난다.

우리 민족의 관광 수준은 세계적으로 낮기로 유명하다고는 하지만 요즘처럼 자연과에 대한 과보를 바로 받고 있는 때에도 관광객들의 의식 수준은 요지부동이니 가슴이 답답하다. 자연은 정복의 대상이 아니라 공존의 대상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다. 무분별한 개발로 인해 파괴된 자연환경 때문에 생태계가 변하여 우리 나라의 자원이었던 뚜렷한 사계절의 변화도 차츰 없어져가고. 그리고 예측할 수 없는 기상변화 때문에 꽃이나 채소들도 제 철을 모르고 피고 지곤 하는 이상현상을 일으키고 있다. 이러한 모든 현상들은 결국 '나하나 뿐인데 어찌' 하는 개인주의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기도 하다. 아름다운 자연을 지키고 가꾸는 책임은 바로 지금의 우리들 개개인이 맡아야 함을 깨닫고 실천에 옮겨야 할 때이다.

神의 존재 강조... 획일적 가치관 유도

초·중·고 교과서 불교관련 오류

현재 교과서는 제 6차 교과과정의 개편에 의해 96년부터 사용된 것으로, 7차 교육과정 시행에 따라 2001년 중학교 1학년, 2002년 중학교 2학년 고등학교 1학년, 2003년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2학년, 2004년 고등학교 3학년 순으로 새 교과서를 사용하게 된다.

초중고 교과서 중 불교관련 내용의 잘못된 기술은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잘못된 가치관과 의식을 심어준다는 점에서 문제가 크다.

특히 21세기 새로운 교육을 지향하는 시점에서 출발한 7차 교육과정은 교과서가 개정되는 것뿐 아니라 교육내용에 있어서도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런 상황에서 교과서의 오류시정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

다음은 조계종 포교원 교과서연구위가 수집한 초·중·고교의 교과서 중 불교관련 내용이 언급된 국어 국사 윤리(도덕) 사회과목의 오류를 정리한 것이다.



교과서는 청소년들의 의식과 가치관을 형성하는데 있어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사진은 현재 사용중인 초·중·고 교과서들.

팔만대장경 명칭 경판 숫자로 오인

초등학교 교과서는 대체적으로 오류가 미미하지만 몇가지 개선사항이 지적된다. 5학년 사회과 탐구 소단원 '대왕암과 같은사'에는 신문왕이 아버지 은혜에 감사하는 뜻으로 감은사를 지은 것으로 서술했으나, 감은사는 문무왕 때 짓기 시작하여 신문왕 때 완공된 절이다. 또 소단원 '석굴암'에도 분황사 석탑이 9층으로 표기되었으나 본래 몇 층인지 분명치 않다. 해인사 팔만대장경의 판각 이유도 우리민족이 문화를 소중히 여기고 발달시키기 위해서라고 보다는 신앙을 통해 나라를 위기에서 구하기 위함이었다는 표현이 함당하다.

중학교 2학년 '청소년의 종교 생활'이라는 항목은 청소년들의 바람직한 가치관 형성을 위해 종교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고 있다. 그러나 내용을 보면 신의 존재를 지나치게 강조하고 있으며, 기독교도인 아들의 참된 종교생활을 방해하는 불교신자 어머니를 등장시켜 어머니와 아들이 언성을 높이며 싸우는 상황을 설정하고 있다.

소승불교 일방적 폄하 국가이론에 불교 제외

중학교 3학년 1학기 국어교과서 소단원 '무궁화' 중 '우리의 마음가짐에 따라 부처도 될 수 있고 악마도 될 수 있다'고 한 부분은 반대개념으로 중생을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1학년 2학기 '민통선 지역탐방기' 두타연 탐방기 중에는 깨끗한 마음으로 '불타'를 닦는 수행...이라는 문장이 있는데 불타를 '불'로 고쳐야 한다. '통일국가의 성립' 단원에서 삼국시대 5교 8상을 설명하며 화엄종이 대표적인 종단이라고 기술하고 있지만, 실제 종단이 성립된 것은 고려시대 부터이다.

인문면에서도 제1단원 '삼국 도덕'에 수록된 '부처님'의 경우 '죽음에 대해 깊이 고민한다 왕자의 자리를 버리고 집을 떠났다'고 기술하여 불교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이 개인 윤리적인 차원으로 한정하고 있다. '원효'의 경우 근거도 없이 '어려서 어머니를 여의었다' 기술하고, 사상중 '心生種種法生'을 '한가지 마음이 일

백제 아사달을 당나라 석수로 적어

고등학교 윤리교과서에 실려있는 불교관련 내용이 2백 36행을 차지하지만 충분한 설명이 없어 불교의 난해함만 가중시키고 있다. 空(공), 和靜(화정), 中道(중도) 오수(梧修) 등의 간략한 표현보다는 학생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고 현실에 적용시킬 수 있는 교리의 현대적 해석과 풀이가 요구된다. 금강경을 반야경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불교의 핵심사상인 중도의 경우도 양비론이나 불가지론으로 해석하고 있어 소극적이고 현실기피적인 종파라는 인식을 심어줄 우려가 있다.

또 불교의 팔관제(八關齋) 정신을 국민윤리적 차원으로 확대한 신라시대부터 중요한 의식이었던 팔관회를 도교행사로, 대승불교를 소개하며 소승불교를 일방적으로 폄하하는 기술도 문제다. 이와 함께 불교의 다양한 교설이 많은 가정·직장·시민생활, 뇌사·장기이식·생명윤리 등에 불교사상이 배제되고 있다. 특히 직업윤리의 경우 '직업에 충실한 것이 바로 신의 부름'에 응하는 것...그러므로 직업은 소명...라 하며 3~4차례에 걸쳐 신의 부름 등으로 강조하는 것은 기독교 중심의 기술이다.

고려시대 정치이념과 도덕과 윤리의 사상적 기반이 유교였다는 내용도 재검토가 필요하다. 김원우 기자

고등학교 윤리교과서에 실려있는 불교관련 내용이 2백 36행을 차지하지만 충분한 설명이 없어 불교의 난해함만 가중시키고 있다. 空(공), 和靜(화정), 中道(중도) 오수(梧修) 등의 간략한 표현보다는 학생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고 현실에 적용시킬 수 있는 교리의 현대적 해석과 풀이가 요구된다. 금강경을 반야경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불교의 핵심사상인 중도의 경우도 양비론이나 불가지론으로 해석하고 있어 소극적이고 현실기피적인 종파라는 인식을 심어줄 우려가 있다.

고등학교 윤리교과서에 실려있는 불교관련 내용이 2백 36행을 차지하지만 충분한 설명이 없어 불교의 난해함만 가중시키고 있다. 空(공), 和靜(화정), 中道(중도) 오수(梧修) 등의 간략한 표현보다는 학생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고 현실에 적용시킬 수 있는 교리의 현대적 해석과 풀이가 요구된다. 금강경을 반야경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불교의 핵심사상인 중도의 경우도 양비론이나 불가지론으로 해석하고 있어 소극적이고 현실기피적인 종파라는 인식을 심어줄 우려가 있다.

의상의 화엄사상 전제정치 이론인양

고등학교 국어(상)교과서 <불국사 기행>중 석가탑을 조성한 백제의 아사달을 당나라에서 불러온 석수로 기술했으며, 실질면 관음보살 표기중 왼쪽 팔과 오른쪽 팔을 거꾸로 바꿔 묘사하고 있다. <구운몽>에도 금강경 사구제(四句偈)를 '네진언'으로 해석하고 있다. 구운몽과 불국사기행은 문학작품인 만큼 교사용지침서에는 바르게 해석하여 가르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고려시대 정치이념과 도덕과 윤리의 사상적 기반이 유교였다는 내용도 재검토가 필요하다. 김원우 기자

고려시대 정치이념과 도덕과 윤리의 사상적 기반이 유교였다는 내용도 재검토가 필요하다. 김원우 기자

목탁소리

김두식 (취재1부 기자)

불자의원 모임 '유감'

도 불자국회의원 모임이 정권 재창출의 전위부대(?)가 아니라 신행단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 지금 불교계는 달라이 라마 방한 문제 이외에도 지리산 댐 백지화, 사찰 문화재 관람료 문제 등 해결해야 할 사안들이 많다. 이같은 현안에 대해 눈치만 볼 것이 아니라 자신의 소신을 당당하게 밝히는 것이 진정한 불자의 모습이 아닐까. 또한 여가 여당논리와 다수당의 논리로 광범하게 줄타기들을 하고 있는 정각회 문제도 진정 불교를 위한다면 정치논리 보다는 원용화합의 정신으로 조속히 매듭지어야 한다. 지금이라도 국회의원 불자모임들은 창립 당시 보여주었던 신행단체로서의 초발심으로 되돌아가야 한다. 더 불어 '표'를 위한 불자 로서가 아니라 불교적 가치를 의정활동을 통하여 사회 속에 널리 구현하는 '자랑스런 불자'로 거듭나길 바란다. 또한 하루속히 정각회를 정상화하고 한국불교가 정도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긴 안목의 신행을 펼쳐야 할 것이다.

최근 새천년민주당 불자모임인 연등회 소속 국회의원들이 달라이 라마 방한운동에 비협조적인 것은 물론, 심지어 의도적으로 방해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국회의원 불자모임들이 순수한 신행단체가 아니라 소속 정당의 정권 재창출을 위한 조직에 불과한 게 아니냐는 비판이 거세게 일고 있다. 재가연대와 달라이 라마 방한준비위원회는 "달라이 라마 방한 관련 정치인 33인 선언자 중 여당 국회의원과 천주교인 국회의원은 볼 수 있어도 연등회 소속 국회의원들은 단 한 명도 찾아 볼 수 없었다"며 불교계 현안 문제를 외면하고 있는 불자국회의원들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또한 각 정당 불자의원 모임은 중심으로 최근 영남권 불교행사에 불자의원들이 빠지지 않고 참석하는 모습도 영남 표를 의식한 정치행보가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있다. 물론 정당과 정치인은 분명 정권을 획득하는 것이 최종 목표이다. 그렇다 하더라도

불자국회의원 모임이 정권 재창출의 전위부대(?)가 아니라 신행단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 지금 불교계는 달라이 라마 방한 문제 이외에도 지리산 댐 백지화, 사찰 문화재 관람료 문제 등 해결해야 할 사안들이 많다. 이같은 현안에 대해 눈치만 볼 것이 아니라 자신의 소신을 당당하게 밝히는 것이 진정한 불자의 모습이 아닐까. 또한 여가 여당논리와 다수당의 논리로 광범하게 줄타기들을 하고 있는 정각회 문제도 진정 불교를 위한다면 정치논리 보다는 원용화합의 정신으로 조속히 매듭지어야 한다. 지금이라도 국회의원 불자모임들은 창립 당시 보여주었던 신행단체로서의 초발심으로 되돌아가야 한다. 더 불어 '표'를 위한 불자 로서가 아니라 불교적 가치를 의정활동을 통하여 사회 속에 널리 구현하는 '자랑스런 불자'로 거듭나길 바란다. 또한 하루속히 정각회를 정상화하고 한국불교가 정도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긴 안목의 신행을 펼쳐야 할 것이다.

국어사전도 불교용어 오류투성

5개사전 257개 항목 교정필요 조계종 총무원이 지난해 3월부터 5월까지 동아 교학 금성 민중 성안 등 5개 유명출판사에서 펴낸 사전류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불교용어를 잘못 풀이했거나 풀이 내용이 빈약한 단어가 257개 항목에 이른다. 오류로 지적된 예 가운데 '생불(生佛)'을 '여러 끼를 굶은 사람' '미륵'을 '불부처'라고 풀이해 불교 사상을 왜곡한 경우도 있다. 또 계를 받는 '수계(受戒)'나, 절에서 주식을 담당하는 공양주를 스님들만으로 한정해 풀이하기도 했다. '방장'의 경우도 총림의 웃어른이라는 용어 대신 주지가 거쳐하는 방으로 설명하고, 구족계를 받지 않은 사미·사미니도 '20세 미만의 어린 중'으로 표기하고 있다. 국어사전은 교과서와 같이 언어 및 문자생활의 기본자료로 활용된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꾸준한 조사와 개정 촉구가 요구된다.

49재 및 영가천도 범보시용으로 매우 좋은 책

Advertisement for '천수경 천수신앙' (천수경 천수신앙) by Namgyunwonjang. Includes a photo of the author and text describing the book's value.

Advertisement for '생활속의 기도법' (생활속의 기도법) by Iltaekun. Includes a photo of the author and text describing the book's value.

Advertisement for '영가천도' (영가천도) by Uryoungkun. Includes a photo of the author and text describing the book's value.

Advertisement for '지장보살본원경' (지장보살본원경) by Kimhyun. Includes a photo of the author and text describing the book's value.

Advertisement for '지장신앙 지장기도법' (지장신앙 지장기도법) by Kimhyun. Includes a photo of the author and text describing the book's value.